

광주에 한국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개소

기업 투자·전략산업 펀드 조성 국내 최초 특화 벤처플랫폼 운영 강 시장 "지역기업 투자 가교 기대" 벤처·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탄력

광주에 한국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가 문을 열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에서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서남권투자금융센터는 △산업은행 네트워크를 통한 서남권 기업 투자·투자 활성화 △지역 육성 전략산업 분야 벤처·중소기업 투자 목적 펀드 조성 △서남권 물류·데이터산업, 지역 주력산업, 산업기반 활성화와 관련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3일 광주 광산구 한국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서남권투자금융센터는 또한 국내 최초 지역 특화 벤처플랫폼 바이런치(V: Launch)를 통해 서남권 지역 혁신기업 투자 유치와 영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기회 제공으로 전문 투자사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들의 자금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서남권투자금융센

터 개소식에서 "산업은행과 기업, 광주시가 윈윈이 된다면 창업성공률 높은 광주로 가는 길도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서남권 투자금융 허브인 서남권투자금융센터의 출발을 축하한다"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투자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고, 창업생태계를 복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시청에서 만나 한국산업은행 서남권금융투자 전담조직 설립 및 지역기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서남권투자금융센터가 지역경제와 기업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 도시 광주' 실현에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서남권투자금융센터를 통해 산업은행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벤처·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광주시 대표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유관기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대책기간 운영 선제 관리·취약계층 안전 총력

전남도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유관기관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 13개 협업부서와 광주지방기상청, 한국도로공사, 전남지방경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책 기간 도민 안전을 위한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기로 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대설·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상황관리 총력대응',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대책', '도로 맞춤형 제설대책'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해 운영한다.

'선제적 상황관리 총력대응'은 기상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특보 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하고, 5단계로 구성된 비상근무 체계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해 인접 지자체, 유관기관과 상호 응원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대책' 일환

으로는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 확대 지정, 경로당 난방비 월 3만원 인상,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연 1만원 인상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특히 한파 응급대피소로 시군 청사나 주민센터 등 30개소를 지정해 주말·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한다.

'도로 맞춤형 제설대책'으로 고갯길과 상습 결빙구간 134개 노선을 집중 관리하고, 폭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16개소 증가된 전진기지 72개소 운영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제설기지, 제설차량, 염수분사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산림연구원, '붉가시열매·참바늘버섯' 식품원료 등재

토종 임산물 가공 산업 '탄력'

전남산림연구원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산림자원인 붉가시나무 열매와 국내 최초로 인공 재배에 성공한 참바늘버섯을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 식품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상록성 참나무로 전국의 82%인 1496ha가 전남에 자생하는 대표적 난대수종이다. 열매인 도토리에는 예로부터 가루로 만들어 도토리묵이나 죽 등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식약처 식품원료로 등재되지 않아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토종자원 식품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토종자원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 연구센터와 함께 식품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 결과 붉가시나무 열매에 대한 식용 근거 옛 문헌자료를 찾아내 식약처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 심의 안건으로 건의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행정예고를 했고, 11월 말 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제2024-71호에 따라 식약처 식품원료로 최종 등재됐다.

참바늘버섯도 함께 식품원료로 등재됐다. 연구원은 참바늘버섯의 지속적인 연구 끝에 국내 최초 인공재배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 식품원료로 등재되지 않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청 연구개발(R&D)을 통해 실용 재배 최적화 기술과 안전성 평가 검증연구를 거쳐 2020년 9월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재됐다. 이후 심의를 거쳐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1호로 등재됐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남도 겨울여행 사진 전시회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6일까지 도청 1층 운선도홀에서 남도 겨울여행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남도 겨울여행 사진전시회엔 최근 발간

한 '겨울 남도여행' 책자에 수록된 22개 시군의 겨울 여행지 풍경과 야간경관, 겨울축제 사진 등 30점을 선보인다.

겨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목포 유달

산, 무안 조금나루, 신안 분재공원, 진도대교, 보성 녹차밭 등 설경 풍경 17점과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해남 우수영관광지, 영광 칠산타워, 구례 화엄사, 담양 죽녹원 등 6점, 일출·일몰이 아름다운 여수향일암, 강진만,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 7점의 풍경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오지현 기자**



북구청 산타

광주 북구청이 3일 청사 외벽에 벽 타는 산타 조형물을 설치했다. 북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벽 타는 산타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김양배 기자